

의복단서, 지각자변인이 여자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II)

-지각자변인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 이현화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박찬부

目 次

I. 서론	V. 논의
II. 이론적 배경	VI. 결론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참고문헌
IV. 결과	ABSTRACT

I. 서론

대인지각은 지각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독특하게 지각되는데, 그 이유는 지각자는 나름대로의 흥미, 내적욕구, 기대가 다르며, 판단기준, 지각하는 방법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며(강혜원, p.82, 1995), 개인의 정체성이나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 채택된 특별한 가치유형에 의해 평가하기 때문이다(Noesjirwan과 Crawford, 1982). 같은 의복(대상)에 대해서도 지각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의 영향을 받아 지각자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수 있는데(Kaiser, 1990, 271~304) 이런 지각자 변인(perceiver variable)에는 지각자의 신체적특성(시각이나 청각의 정확성), 심리적 특성(성격, 가치관, 목적), 인지적 구조(기억, 지식) 등이 포함된다. 대인지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각자의 변인에 대한 연구중 성별에 관한 연구는 Sweat·Zentner(1985), Abbey(1987), Lewis·Johnson(1989~90), Kaigler-Evans·Damhorst(1978), Behling·Williams(1991)등이 실시하여

인상형성에 있어서 남·여간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연구(Littrell·Berger, 1985~86; Noesjirwan·Crawford: 1982)등에서도 인상형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각자 변인중 지각자의 성별과 전공이 여자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자한복의 색상과 색상조화, 구조를 의복단서로 하여 지각자의 성별, 전공에 의한 효과차이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 II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의복착용자의 인상형성시 지각자의 성별 및 전공에 따른 의복단서의 영향을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1. 색상과 의복

제1보(이현화·박찬부, 1997, 313~336)에서 색채에 관한 문헌고찰을 행하였으므로 본보에서는 간략하게 고찰하고자한다. 색상과 의복과의 관계

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삼호(1990)은 직물표본에 의한 색채선호와 의복스타일(원피스, 튜피스, 블라우스, 스커트·바지, 한복저고리, 치마)에 따른 색채 및 배색선호간의 비교연구를 하였다. 직물35가지표본에 대한 색채선호조사를 한 결과, 한복저고리의 색상선호는 노랑, 분홍, 연한 보라의 순이었으며, 한복치마는 녹색, 빨강, 초록의 순위였다. 한복저고리색의 선호에 있어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한복저고리와 치마는 다른 의복종류의 착용선호색과 달리 순색을 높게 선호하여 전통적인 보색대비를 선호하였다. 김진아(1994)는 여자한복의 문양과 배색선호도에 관한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문양에 관심이 많았으며, 문양의 종류로 인기있는 것은 자수로 그 형태는 식물문이었다. 배색에서는 상하이색을 많이 착용하였고, 계절적으로는 여름용은 옥색치마저고리, 겨울용으로는 자주치마저고리, 춘추용으로는 분홍치마저고리였다. 용도별로 보면 명절용, 예식용, 모임 및 특별행사용으로 분홍치마저고리를 가장 선호하여 분홍색이 한복에서의 색상으로는 매우 선호됨을 알수 있었다. 저고리는 민저고리를 가장 선호하였고, 무위에 있어서 깃, 고름, 끝동, 결마기에 회장을 한 저고리는 젊은 여성에게 인기가 있었으며, 이때의 배색은 저고리와 같거나 비슷한 색을 선호하였다. 또한 강혜원·고애란(1991, 125~137)의 여대생과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복 및 한복의 선을 이용한 디자인연구에서 한복색배합선호에 있어서 유사색또는 보색조화에 대해 일관성있는 선호는 없고 치마색이 선호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분홍저고리에 보라색치마가 가장 선호되는 색조화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색상과 의복에 관련한 연구들로는 이정희(1989)의 한국과 미국 여대생들의 의복색상선호도에 관한 연구, 박화순(1993)의 4가지배색유형에 대한 지각반응의 연구, Crown(1978)의 색채변화의 수용에 관한 연구, Williams등(1980)의 청년기여성의 배색선호에 관한 연구가 있다.

2. 인상형성에 있어서 지각자변인의 영향

1) 의복관심

의복을 변인으로 한 Miller등(1982)의 연구결과 타인의 외모에 민감한 사람은 신체외모 단서로 타인의 인상을 형성하고 수정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복관심은 의복단서에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는가에 관계된다. Paek(1986)의 연구결과 지각자의 의복관심이 의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어 높은 의복관심을 지닌 지각자들은 그렇지 않은 지각자에 비하여 대담한 의복유형에 대해 호의적인 인상을 받았고, 보수적, 캐주얼 유형에 대해서는 비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하였다.

강혜원, 이주현(1990)의 연구에서는 지각자의 의복관심이 낮을수록 의복착용자에 대한 6개차원(평가·능력, 품위, 개성·동조성, 친화, 화려함, 겸소함)의 인상중 평가·능력 측면을 더 높이 지각하였다.

2) 성(性)

Sweat와 Zentner(1985)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의복의 4가지 스타일(극적, 낭만적, 보수적, 활동적)에 대한 성격추론에 있어서 각 의복스타일의 고정관념적인 이미지에 더 가깝게 성격특질을 추론하였다. Abbey등(1987)은 성적매력성(sexuality) 지각에 있어서 의복노출의 정도와 남·녀 지각차이를 연구한 결과 남성지각자들이 여성지각자보다 여성자극물에 대해서 더 색사하고 매혹적으로 평가하였으며, Lewis와 Johnson(1989~90)의 연구에서 남자대학생은 여자대학생보다 성범죄피해는 성적흥미를 유발시키는 의복을 착용한 피해자 자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귀인하였으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으로 풀이되었다.

Kaigler-Evans와 Damhorst(1978)는 남·녀대학생에게 casual한 외모의 자극물에 대한 성격추론을 하게 한 결과 성격추론의 행동사에 있어서

남자는 7개의 요인이 여자는 5개의 요인이 얻어졌고, 요인을 구성하는 성격특성 형용사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남자대학생은 자극불의 성적 매력에 중점을 둔 반면, 여자대학생들은 의복의 사회계층 및 유행성에 중점을 두었다.

Behling와 Williams(1991)은 의복유형(Hood, Artsy, Dressy, Casual한 유형)이 학습능력기대와 지능에 대한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결과 여자지각자들은 남자지각자들보다 Artsy유형의 의복을 입은 모델의 학습기대능력과 지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남자지각자들은 여자지각자들에 비해서 Hood Look 모델들의 지능에 대한 인상이 더 낮게 평가되었다.

3) 연 령

Delong(1978)은 여자대학생과 중년여성의 지각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여자대학생집단은 모든 평가에 있어서 고른 평가를 하였으나 중년여성의 평가는 어느 한 부분에 집중되어있고 유행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지극히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에란(1990)의 의복의 정숙성에 대한 인상형성 연구에서 정숙성 조작변인에 의해 영향받는 정도가 대학생보다 40대 중년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고, 남미우(1994)의 연구에서도 청년 집단보다 중년집단이 평가요인에 관한 인상에서 상황과 의복단서의 영향을 받아 남자의복착용자를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김광경(1991)의 연구에서는 연령차이가 여자지각자에게만 나타났다.

4) 직 업

Littrell과 Berger(1985~86)은 지각자의 직업(상담원, 경찰)과 의복단서(단정함 정도)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경찰관은 상담원보다 더 많은 단서를 사용하여 특정세부사항에 주목한 반면, 상담원은 의모의 전체적인 측면을 주목하여 평가하였다.

Behling와 Williams(1991)의 연구에서 지각자

를 교사들과 학생으로 나누어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Dressy한 유형과 Arty한 유형 평가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나, 교사들은 Dressy한 유형보다 Arty한 유형을 더 낮게 평가하여 의복을 Fashion으로서 지각하는 데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Noesjirwan와 Crawford(1982)는 지각자의 전공(교육, 농업, 경영, 사회·심리)에 따라 인상형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한 결과 전공에 따라서 평가에 차이가 있었는데 농업전공자들은 실질적이며, 남성적으로 지각하였고, 경영전공 학생들은 프로테스탄적이며 윤리적으로, 사회·심리전공 학생들은 활동적이며, 사회인지적이며 매우 비판적으로 인지하였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치가 지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자극물과 이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전공)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는 문헌조사와 예비조사를 통해 선정,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완성되었다.

1) 자극물

여자가 한복을 착용한 모습의 칼라사진을 자극물로 제시하였다. 자극물은 제1보에 제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얼굴과 자세 및 스타일을 통제한 동일인물의 여자한복유형으로 하였으며 한복의 색상, 색상조화 및 구조의 변화로 변인조작을 한 19장의 칼라사진(5×7in)이었다.

한복의 색상은 면적을 넓게 차지하는 치마색상을 중심으로한 한색과 난색으로 제한하였다.

한복의 색상조화는 잡지에 나타난 한복색의 빈도를 파악하여, 크게 유사조화와 대비조화로 분류해서 한색계의 유사조화, 난색계의 유사조화 및

대비조화에서 각 색상조화별로 빈도수가 높은 의복을 선정하여 자극물로 제작하였다. 그러나 유사조화에서 동일색상조화와 인접색상조화의 경우에 빈도수가 높은 것을 자극물로 제작하여 검토한 결과 지각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일색상조화만을 선택한 반면, 대비조화에서는 뚜렷함을 이루는 대비조화 중 보색조화, 근접색을 이용한 보색조화, 대비색조화, 삼각조화의 배색을 선택하였다.

한복의 구조는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각 부분들의 색의 조화를 통해 ① 저고리, 치마, 깃 및 고름의 색상이 모두 동일한 구조(저고리·치마·깃·고름) ② 깃·고름색이 치마색과 동일하고 저고리색과 다른 구조(저고리/치마·깃·고름) ③ 깃·고름색이 저고리색과 동일하고 치마색과 다른 구조(저고리·깃·고름/치마) ④ 저고리·치마색이 동일하고, 깃·고름색이 동일하지만, 깃·고름색이 저고리·치마색과 다른 구조(깃·고름/저고리·치마)의 4종류로 제한하였다.

자극물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사진자극물의 조작내용

색상조화	치마색상		한 색	난 색	계
	구 조				
유사조화	저고리·치마·깃·고름		1	1	2
	저고리·깃·고름/치마		1	1	2
	저고리/치마·깃·고름		1	1	2
	깃·고름/저고리·치마		1	1	2
대비조화	저고리·깃·고름/치마		2	2	4
	저고리/치마·깃·고름		2	2	4
	깃·고름/저고리·치마		1	1	2
	(저고리/치마/깃·고름) ^a		.	(1)	(1)
계			9	9(1)	18(1)

a : 삼각조화(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의 의복단서는 인상차원에서만 분석되었고 그외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음.

<구조>

- ① 저고리·치마·깃·고름-저고리, 치마, 깃 및 고름의 색상이 모두 동일색상인 의복.
- ② 저고리·깃·고름/치마-저고리와 깃과 고름이 동일색상이고, 치마의 색상만 다른 의복.

- ③ 저고리/치마·깃·고름-치마와 깃과 고름은 동일색상이고 저고리색상만 다른 의복.
- ④ 깃·고름/저고리·치마-깃과 고름이 동일색상이며, 저고리와 치마가 동일색상이지만 깃·고름색이 저고리·치마색과 다른 경우의 의복.

2) 의미미분척도

자극물 속의 의복착용자의 인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출된 30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된 7점척도의 의미미분척도로 제1보에서와 같다.

3) 인구통계학적 배경

지각자의 성별·전공을 묻는 2개의 문항이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과정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조사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 및 대학원생 163명으로 남자 77명 여자 86명이었다. 조사기간은 1996. 5월~6월의 기간에 총 4주에 걸쳐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2) 자극물 제시방법과 자료수집과정

본 연구는 full factorial design이 아니고 한 피험자가 자극물 19장을 모두 평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9장의 자극물을 동시에 제시할 경우 인상형성평가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색상, 색상조화, 구조를 고려해서 구성하여 제시간격은 1일정도로 5회에 걸쳐 나누어서 인상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순서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지각자에게 제시되는 자극물의 순서는 달랐으며, 개별면접을 통해서 자극물을 제시하였다. 본실험 및 조사에 앞서 남·여대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조사를 실시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6.11 Program을 이

용하여 신뢰도 검증, 요인분석, 변량분석, Scheffé 검증을 행하였다.

연구문제의 규명을 위해 의미미분척도를 요인 분석(varimax회전)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요인점수로 의복단서와 지각자변인별(성별, 전공) 변량분석과 Scheffé의 다중범위검증을 시행하였다.

IV. 결 과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의 차원을 알기위해 자극 물별로 응답한 의미미분척도의 측정치를 Varimax 회전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의복착용자의 인상을 도출하였고 의복단서별로 도출된 인상차원의 구조를 비교하였다. 인상차원의 각 요인별 내용은 연구 I에서 언급되었다.

도출된 인상차원은 선호·평가, 개성·주의집중, 젊음, 친화의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인상의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선호·평가요인이 29.6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개성·주의집중요인(25.13%), 젊음요인(5.07%), 친화요인(3.70%) 순이었다.

<연구문제>

의복착용자의 인상형성시 지각자의 성별 및 전공에 따른 의복단서의 영향

의복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시 지각자변인(성별, 전공)에 따른 의복단서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각 요인별 요인점수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Scheffé test로 평균요인값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변량분석결과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경우는 각 요인점수의 평균값을 도표(graph)로 나타내어 설명하였다.

요인점수의 계산: 각 요인에 포함된 변수의 기여도(형용사쌍의 요인부하량의 높·낮이)에 따른 회귀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요인점수에 따른 결과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의미한다.

지각자변인(성별, 전공)에 따른 인상요인별 변량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 1) 선호·평가요인에 대한 지각자의 성별, 전공에 따른 의복단서의 영향
- 선호·평가요인에서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주

<표 2> 지각자변인(성별, 전공)에 따른 요인별 변량분석

(N=163)

독립변인		인상요인		개성·주의집중 요인		젊음 요인		친화 요인			
		Mean	F값	Mean	F값	Mean	F값	Mean	F값		
지각자변인	성별	남자(N=77)			.05A ^a		-.04B		.12A		
		여자(N=86)			-.04B	7.67**	.03A	5.83*	-.11B	46.63***	
	상호작용효과	색상조화×성별				32.39***				8.99**	
		치마색상×성별		6.35*		20.73**		13.30***			
		구조×성별		2.84*		5.58***					
	전공	인문계(N=71)		-.04B				.04A		-.06B	
		자연계(N=92)		.03A	4.47*			-.03B	4.96*	.05A	11.03***
		상호작용효과		6.00*		14.83***				10.77***	
		치마색상×전공				11.38***					
	구조×전공		2.99*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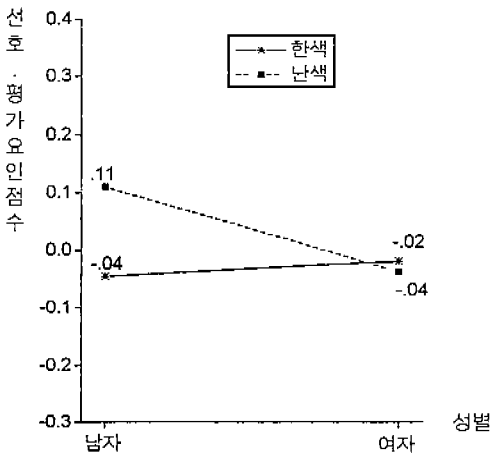
*p<.05, **p<.01, ***p<.001

F값은 의미있는 것만을 제시하였음.

a : Scheffé의 다중범위 검정결과를 나타내는 문자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열별 전공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나 자연계가 인문계보다 선호·평가요인의 인식에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P < .05$). 또한 의복단서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치마색상과 성별($P < .05$), 구조와 성별($P < .05$), 색상조화와 전공($P < .05$), 구조와 전공($P < .05$) 사이에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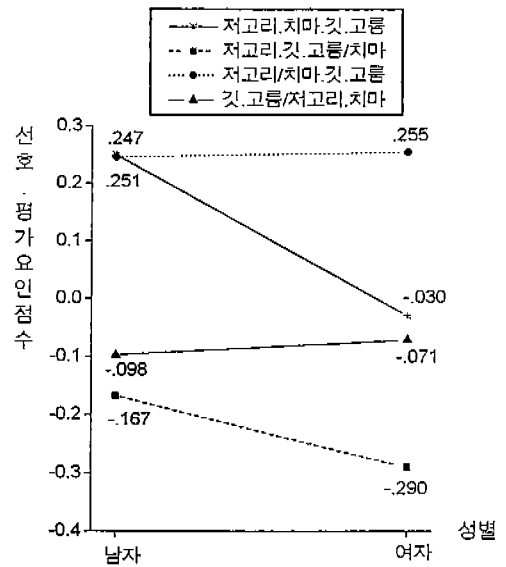
〈그림 1〉은 선호·평가요인에서 치마색상과 성별과의 상호작용효과인데 남자는 난색의 치마색상을 한색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여자는 한색의 치마색상을 난색보다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남자는 치마색상의 한·난색의 지각에 있어 차이가 큰 반면, 여자는 치마색상의 한색과 난색의 지각에 있어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 선호·평가요인의 인식에 대한 치마색상과 성별 상호작용효과

〈그림 2〉는 선호·평가요인에서 구조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인데 남자는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와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를 지각함에 있어 거의 동일하게 지각했으나 여자는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를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보다 훨씬 더 선호·평가인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여자는 선호·평가인상요인에 대하여 남자보다 깃·고름/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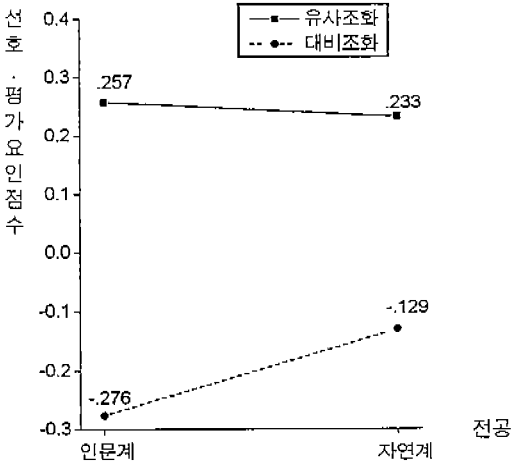
리·치마의 구조와 저고리·깃·고름/치마의 구조간에 지각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선호·평가요인에 대하여 남자의 경우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와 깃·고름/저고리·치마의 구조간에 지각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했으나 여자의 경우는 남자와 같이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를 약간 더 긍정적으로 지각했으나 이 두구조간에 지각차이가 크지 않은 경향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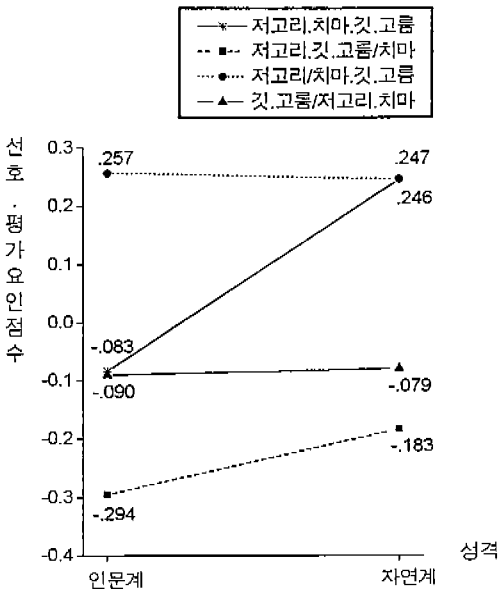
〈그림 2〉 선호·평가요인의 인식에 대한 구조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3〉은 선호·평가요인에서 색상조화와 계열별 전공간의 상호작용효과로 인문계와 자연계가 유사조화의 지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대비조화의 지각에 있어서는 인문계에 비하여 자연계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림 4〉는 선호·평가요인에서 구조와 계열별 전공의 상호작용효과인데 인문계는 저고리/치마·깃·고름구조를 저고리·치마·깃·고름구조에 비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지각했으나 자연계는



〈그림 3〉 선호·평가요인의 인상에 대한 색상조화와 전공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4〉 선호·평가요인의 인상에 대한 구조와 전공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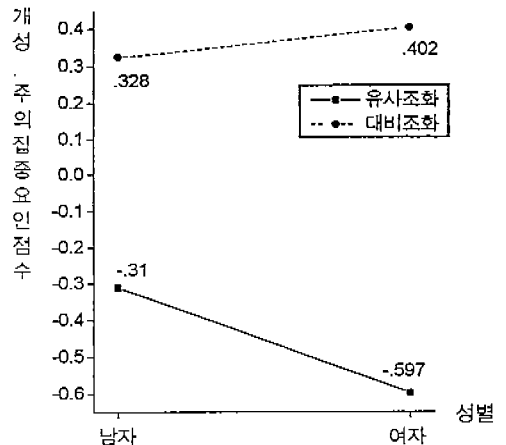
두 구조를 거의 유사하게 긍정적으로 지각했다. 인문계의 경우 저고리·치마·깃·고름구조와 깃·고름/저고리·치마구조의 지각에 있어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저고리·치마·깃·고름구조의 지각에 있어서는 자연계가 인문계에 비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저고리·깃·고름/

치마의 구조지각에 있어서도 자연계가 인문계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 개성·주의집중요인에 대한 지각자의 성별, 전공에 따른 의복단서의 영향

개성·주의집중요인에서는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P < .01$) 개성·주의집중요인의 인상에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성·주의집중요인에서도 또한 의복단서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색상조화와 성별($P < .001$), 치마색상과 성별($P < .01$), 구조와 성별($P < .001$), 색상조화와 전공($P < .001$), 치마색상과 전공($P < .001$), 구조와 전공($P < .05$)사이에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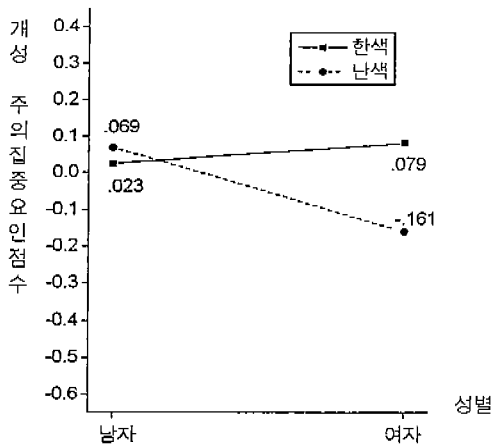
〈그림 5〉는 개성·주의집중요인에서 색상조화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이다. 개성·주의집중요인에 대하여 남·녀 모두 대비조화의 단서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여자는 대비조화의 단서를 남자보다 더 개성적이고 주의집중적으로 지각했으며 유사조화지각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개성적이고 주의집중적으로 평가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개성·주의집중요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대비조화의 단서를 유사조화의 단서



〈그림 5〉 개성·주의집중요인의 인상에 대한 색상조화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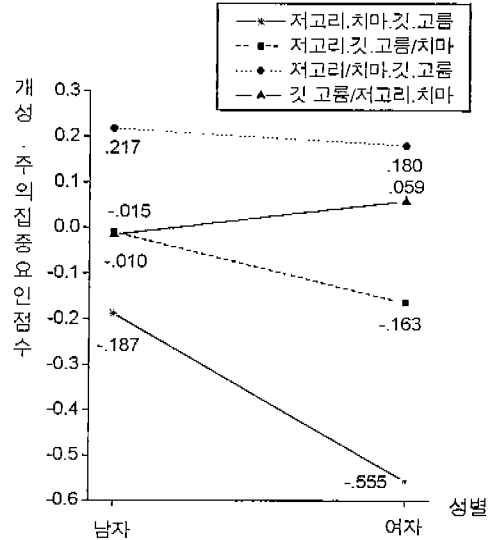
<그림 6>은 개성·주의집중요인에서 치마색상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로 남자는 난색을 한색보다 약간 더 개성적이고 주의집중적으로 평가한 반면 여자는 한색을 난색보다 더 개성적이며 주의집중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남자는 한·난색간의 지각차이가 크지 않은반면, 여자는 남자보다 지각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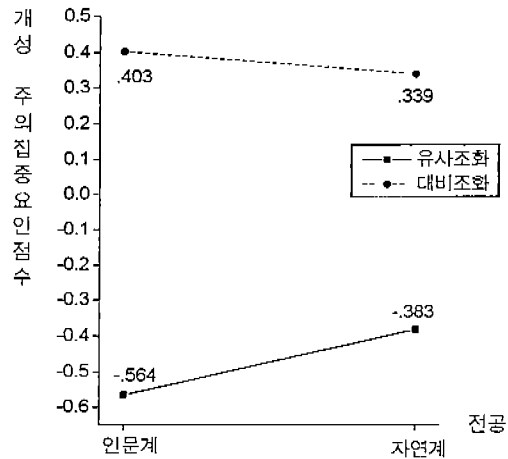
<그림 6> 개성·주의집중요인의 인식에 대한 치마색상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7>은 개성·주의집중요인에서 구조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로 구조별 남녀의 지각순위는 같았다. 그러나 남자는 깃·고름/저고리·치마구조와 저고리·깃·고름/치마구조를 거의 유사하게 지각하였으나 여자는 깃·고름/저고리·치마구조를 저고리·깃·고름/치마구조에 비해 더 개성·주의집중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저고리·치마·깃·구조지각에 있어서 남자는 여자에 비해 개성·주의집중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여자는 남자에 비해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그림 8>은 개성·주의집중요인에서 색상조화와 계열별 상호작용효과로 자연계·인문계 모두 대비조화를 개성·주의집중요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대비조화는 인문계가 자연계에 비해 약간 개성·주의집중적으로 지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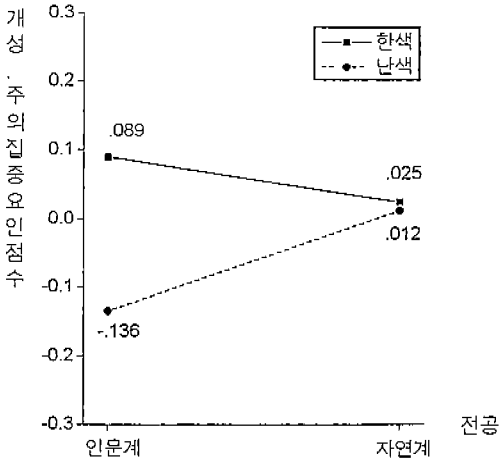
<그림 7> 개성·주의집중요인의 인식에 대한 구조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8> 개성·주의집중요인의 인식에 대한 색상조화와 전공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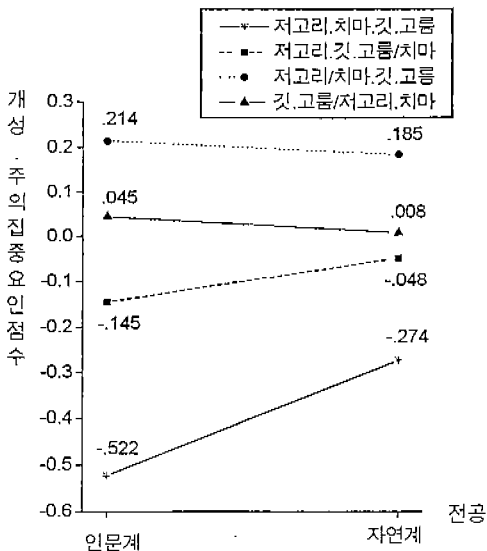
반면 유사조화는 자연계가 인문계에 비해 더 개성·주의집중적으로 지각하였다. 색상조화에 따른 지각의 폭이큰 집단은 인문계였다.

<그림 9>는 개성·주의집중요인에서 치마색상과 계열별 전공의 상호작용효과로 인문계는 치마색상이 한색인 경우를 난색인 경우보다 더 개성적이며 주의집중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연계는 치마의 한·난색을 거의 유사하게 지각하였다.



〈그림 9〉 개성·주의집중요인의 인식에 대한 치마색상과 전공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10〉은 개성·주의집중요인에서 구조와 계열별전공의 상호작용효과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구조에 따른 의복을 지각하는 순위는 동일하였으나 인문계열이 자연계열보다 깃·고름/저고리·치마구조 및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를 약간 높게 평가하였고, 인문계열이 저고리·깃·고름/치마구조와 저고리·치마·깃·고름구조를 낮게 평가하였다. 전체적으로 구조에 따른 지각의 차이가 큰 집단은 인문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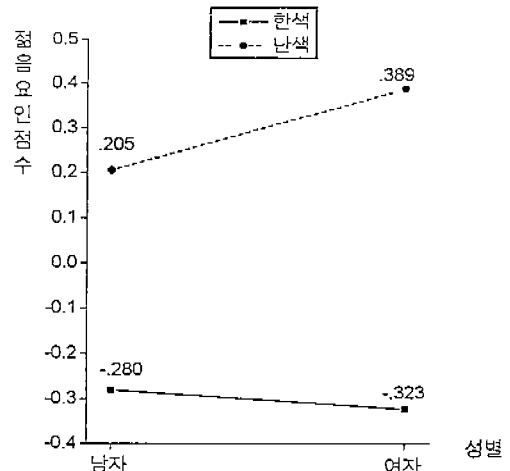


〈그림 10〉 개성·주의집중요인의 인식에 대한 구조와 전공의 상호작용효과

3) 젊음요인에 대한 지각자의 성별, 전공에 따른 의복단서의 영향

젊음요인에서는 성별과 전공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는데 여자가 남자($P < .05$)보다, 인문계가 자연계($P < .05$)보다 젊음요인의 인식에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단서와의 상호작용효과는 치마색상과 성별($P < .001$)사이에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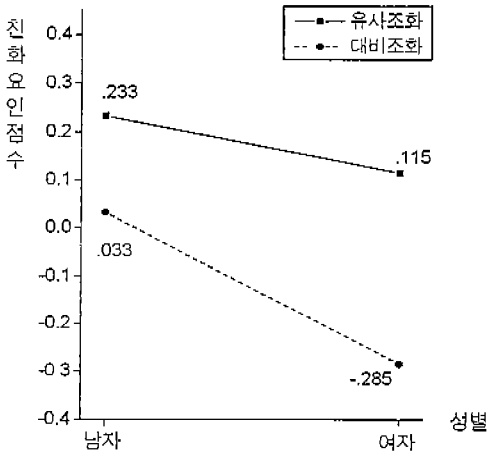
〈그림 11〉은 젊음요인에서 남·녀 모두 난색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나 치마색상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로 난색의 치마색상은 여자들이 남자에 비하여 더 짧게 지각하였으며, 한색의 치마색상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약간 짧게 지각하였다. 전반적으로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치마색상(한색, 난색)에 따른 젊음인상지각에 있어서 한·난색에 따른 지각차이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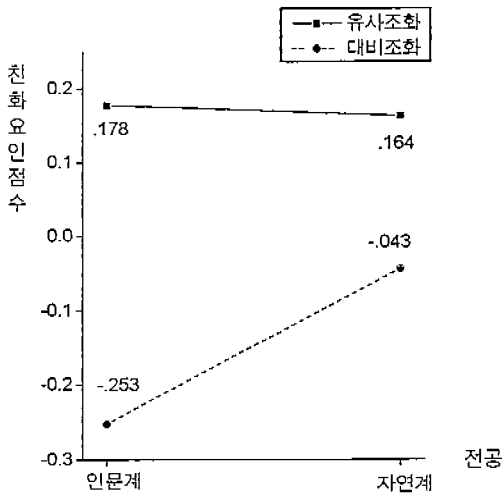
〈그림 11〉 젊음요인의 인식에 대한 치마색상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4) 친화요인에 대한 지각자의 성별, 전공에 따른 의복단서의 영향

친화요인에서는 성별과 전공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P < .001$), 자연계가 인문계보다($P < .001$)더 친화요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복단서와의 상호작용효



〈그림 12〉 친화요인의 인식에 대한 색상조화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13〉 친화요인의 인식에 대한 색상조화와 전공의 상호작용효과

과는 색상조화와 성별($P < .01$)에서, 색상조화와 전공($P < .001$)에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는 친화요인에서 색상조화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로 남·녀모두 유사조화를 대비조화보다 더 친화적으로 평가하였다. 성별간 차이를 보면 여자는 친화요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유사·대비조화의 단서 모두 남자보다 낮게 평가했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대비조화의 단서를 더 친화적

인 것으로 평가해 남자의 경우에는 친화요인 평가에 있어서 유사조화와 대비조화의 단서에 의한 영향이 여자만큼 크지 않았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유사·대비조화에 따른 친화적 지각차이의 폭이 더 컸다.

〈그림 13〉은 친화요인에서 색상조화와 계열별 전공의 상호작용효과로 유사조화의 경우는 인문계와 자연계간 차이가 거의 없으나 대비조화의 경우에는 자연계가 인문계에 비해 더 친화적으로 평가하여 색상조화에 따른 지각의 차이의 폭은 인문계집단이 더 컸다.

V. 논 의

1. 지각자의 성별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4가지 인상요인중 성별은 개성·주의집중, 젊음, 친화요인에서 주효과가 나타나 인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의복단서와 상호작용하여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주효과에서 개성·주의집중요인과 친화요인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젊음요인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의복단서와의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인상들에서, 선호·평가요인의 인상에 나타난 치마색상과 성별과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한·난색간의 의복색상을 크게 차이나게 지각한 반면, 나머지 인상요인(개성·주의집중, 젊음)들에 나타난 치마색상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한·난색의 치마색상 의복단서에 대해 지각의 차이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들은 인상요인들중 특히 좋고 싫음의 평가에 있어서만 치마색상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난 반면 다른 인상요인들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치마색상의 의복단서와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결과와 반대되는 흥미로운 결과라 할수 있겠다. 나머지 요인(개성·주의집중, 젊음, 친화요

인)의 인상에 영향을 미친 각각의 의복단서(색상조화, 구조)와 성별과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단서에 따른 지각의 차이가 커서 여자가 좀더 단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할수 있겠다. 이는 배색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단서에 민감한 반응을 했다는 선행연구(박화순, 1993)와 일치하였다.

특히 성별과 의복단서들과의 상호작용효과에서 치마색상과의 상호작용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남녀간에 있어서 각 해당요인에서의 평가의 기준에 치마색상의 영향이 좀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는 강혜원과 고애란의(1991)의 연구에서 치마색이 선호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하겠다.

2. 지각자의 전공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인상요인중 전공은 선호·평가요인, 젊음요인 및 친화요인에서 주효과가 나타나 인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의복단서와 상호작용하여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주효과에서 선호·평가요인과 친화요인에서는 자연계가, 젊음요인에서는 인문계가 더 긍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은 색상조화와 상호작용하여 선호·평가요인, 개성·주의집중요인, 친화요인에, 치마색상과 상호작용하여 개성·주의집중요인에, 구조와 상호작용하여 선호평가요인, 개성·주의집중요인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인문계는 자연계보다 색상조화(유사조화, 대비조화)에 따른 의복단서의 영향이 선호·평가요인, 개성·주의집중요인, 친화요인에서 색상조화유형간의 요인점수 차이가 더 컸으며, 인문계는 치마색상(한색, 난색)에 따른 의복단서의 영향이, 개성·주의집중요인에서 한·난색간의 요인점수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자연계에서는 요인점수차이가 거의 없었다. 또한 인문계는 자연계에 비해 저고리·치마·깃·고름의 구조에 의한 영향이 선호·평가요인,

개성·주의집중요인에서 상당히 낮게 나타나 한가지색상의 여자한복차림을 선호하지 않았으며 개성적이 아니고 눈에 띄지 않는 단서로 평가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전공(인문계, 자연계)에 따른 의복단서의 영향이 인상요인에 대하여 차이나게 나타났으며 특히 인문계는 자연계보다 색상조화(유사조화, 대비조화)에 의한 단서의 영향이 선호·평가요인, 개성·주의집중요인 및 친화요인에서 민감하게 나타났으며, 치마색상(한색, 난색)에 의한 단서의 영향은 개성·주의집중요인에서 민감하게 나타났다.

특히 전공과 의복단서들과의 상호작용효과에서 의복단서(치마색상, 색상조화, 구조)중 색상조화와 의 상호작용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인문계와 자연계의 전공차이에 따른 지각자의 인상형성에 있어서 각 해당요인의 평가기준에 색상조화가 좀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수 있겠다.

VI.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의복에 의한 대인지각연구에서 인상형성이론을 적용하여 여자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지각자의 변인(성별, 전공)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의복착용자에 대한 인상은 의복단서를 조작한 19장의 칼라사진을 자극물로 사용하여 의미분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지각자들은 19장의 자극물을 모두 보고 그 인상을 평가하였다.

지각자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 및 대학원생 163명으로 남자 77명, 여자 86명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한복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시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영향에서 남자는 개성·주의집중요인과 친화요인을 여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여자는 젊음요인을 남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둘째, 인상형성시 남자는 여자보다 선호·평가

요인에서 치마색상단서에 의한 영향이 특히 민감하게 나타났고, 대부분의 경우의 인상형성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의복단서에 의한 영향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되어 나타났으며 의복단서(치마색상, 색상조화, 치마색상)중 치마색상에 의한 영향이 인상요인에 민감하게 나타났다.

셋째, 여자한복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시 지각자의 전공에 따른 영향에서 인문계는 젊음요인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자연계는 선호·평가요인, 친화요인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넷째, 인상형성시 인문계의 지각자들은 자연계의 지각자들보다 의복단서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의복단서(치마색상, 색상조화, 구조)중 색상조화와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여자한복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시 지각자변인(성별, 전공)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지각자변인중 성별에서는 여자가, 전공에서는 인문계가 의복단서들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여, 여자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지각자변인에 의한 영향을 알수 있었다. 또한 지각자의 변인에 따라서 인상요인에 대한 의복단서의 유의한 영향이 달리 나타나 성별에서는 치마색상이, 전공에서는 색상조화가 각각의 지각자변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인상효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 있다.

참고문헌

-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1995
- 강혜원, “이주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1), pp.31~43, 1990
- 강혜원, 고애란, “한복 및 한복의 선을 이용한 디자인에 대한 연구-태도, 선호 및 착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문집 5, pp.125~137, 1991
- 고애란, “suit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0
- 김광경, “남성적·여성적 의복이 직장여서의 직업특성과 직업적합성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진아, “여자한복의 문양과 배색선호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남미우,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변인이 남자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박화순, “의복의배색유형에 따른 지각반응에 관한 연구”, 대구대가정생활연구논문집, 8, pp.79~90, 1993
- 이정희, “한국인과 미국인여대생의 의복색상선호도 비교연구”, 성심외전문논문집, 8, pp.593~625, 1989
- 이현화·박찬부, “의복단서, 지각자 변인이 여자한복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I) -의복단서를 중심으로-”, 복식, 32, pp.313~336, 1997
- 정삼호, “성인여성의 직물표본에 의한 색채선호와 의복스타일에 따른 색채 및 배색선호간의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가정문화논총, 4, pp.55~74, 1990
- Abbey A., Cozzarell C. Mclaughlin K. & Harnish R., *The effects of clothing and dyad sex composition on perceptions of sexual intent: do women and men evaluate these cues differentl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2), pp.108~126, 1987
- Behling D.U. & Williams E.A., *Influence of dress perception of intelligence and expectations of scholastic achievemen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4), pp.1~7, 1991
- Crown E.M. *Consumer perception and acceptance of color change in textiles*, H.E.R.J 6(3), pp.206~211, 1978

- DeLong M.R., *Dimensions of visual perceptions of clothing*,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7, pp.907~910, 1978
- Kaigler-Evans K. & Damhorst M.L., *Impression formation : use of descriptors of personal trai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6, pp. 903~906, 1978
- Kaiser S.,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2nd ed.), New York : Macmillan Pub. co. 1990.
- Lewis L., Johnson Kim, K.P., *Effect of dress, cosmetics, sex of subject, and casual inference on attribution of victim responsibilit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1), pp.22~27, 1989~90
- Littrell M.A. & Berger E.A., *Perceiver's occupation and client's grooming : Influence on person percep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4(2), pp.48~55, 1985~86
- Miller F.G., Feinberg R.A., Davis L.L. & Rowold K.L., *Measure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ensitivity to appearance*, H.E.R.J 10(4), pp. 381~390, 1982
- Noesjirwan J.A. & Crawford J.M., *Variations in perception of clothing as a function of dress form and viewers' social communit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4, pp.155~163, 1982
- Paek S.L., *Effects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trai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5(1), pp.10~16, 1986
- Sweat, S.J., Zentner, M.A., *Attributions toward female appearance styles*, The psychology of fashion, MA : Heath, Lexington Books, pp. 321~335, 1985
- Williams J., Abaugh J., & Rucker M., *Clothing color preferences of adolescent females*, H.E. R.J 9(1), pp.57~63, 1980

ABSTRACT

Effect of Clothing cues and Perceiver variables on Impression Formation of Female dressed in Korean Dress(Part II) — Focus on Perceiver Variables —

Nineteen stimulus photographs varied in hue and color scheme of one clothing style of Korean dress worn by a female were used to explore the differences in perceptive effect of clothing cues(color, color scheme, structure) on impression formation by perceiver variables (gender and major). Subjects were 77 male 86 female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factor score, ANOVA and Scheffé-test. Results indicate perceptive effects of clothing cues on impression formation are influenced by gender-differences and major-differences of perceivers.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n perception of clothing cues on impression effect. Interaction effects were found between clothing cues and gender. Significant major differences were found in perception of clothing cues on impression effect. Interaction effects were found between clothing cues and perceiver's major.

Female perceivers and perceivers of majoring in Liberal Arts reacted to clothing cues on impression formation with greater sensitivity than male perceivers and perceivers of majoring in Natural Sciences. Freque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gender and color of Chima (cool-warm color), between major difference and color scheme(related color harmony-contrasting color harmony) appeared on factors of

impression effect.

The influence of perceiver variables on their perception of clothing cues for impression ef-

fect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gender difference and perceiver's majoring background in a social situation.